

Venture 즐겨찾기

IT산업 재도약을 선도한다, IT벤처기업연합회

최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산업의 재도약을 선포하고 전력을 가다듬은 IT벤처기업연합회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IT전문협의회 운영, 공동협력사업 전개 등 실제적인 방안으로 IT벤처기업의 협력과 활성화를 주도하게 될 연합회의 다양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본다.

KOIVA



IT벤처기업연합회 (<http://www.koiva.or.kr>)

IT벤처기업연합회의 홈페이지에는 해외마케팅사업, IT인력개발사업, 경영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에 관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 IT벤처기업인들에게 유용하다. IT산업계의 최신 뉴스와 각종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IT전문협의회, 공동협력사업, 현장지원단 파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다.

IT

벤처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96년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검증받은 유망정보통신기업협의회로 출범하여 올해로 9주년을 맞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IT분야 중소기업·벤처기업 15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통신장비, IT부품, S/W,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등 6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회원사들 중 상당수가 첨단 통신장비, 통신기술, 응용S/W, 콘텐츠 등 우리나라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IT벤처기업의 협력도모

연합회의 가장 큰 기능은 회원사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공동마케팅 등의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들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제고를 돕고 있다. 그동안 연합회는 2만여 IT중소·벤처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고, 기업들의 애로요인을 발굴해 정책을 건의해 왔다. 금융, 조세, 병역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정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국제협력사업 부문에서는 IT 관련 해외 유사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수출 활로를 모색해 왔으며, 국제회의의 참석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IT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원사업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 투자유치설명회를 분기별로 1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격월로 1회씩 개최해 활성화하고 있다. 그밖에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유망 IT중소·벤처기업과 투자자 연계, IT분야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제도약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는 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을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도약 프로그램인 IT SMERP(IT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ject)를 본격적으로 가동함으로써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IT전문협의회 구성·운영, '공동협력사업 전개' 등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IT전문협의회란 IT산업을 기술, 시장, 상품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세부 전문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해당 분야 리딩기업을 중심으로 그룹핑하여 분야별 공통어로 조사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상시 정책 협의체를 말한다.

연합회는 지난 2월 전문협의회지원센터를 사무국 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협의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통어로 컨설팅 및 시장·기술 분석 정보 제공, 투자유치지원, 공통지원서비스(Shared Service) 및 애로기술 해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및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중소기업군 육성', '업계의 자율적 시장건전화 유도' 등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간 공동협력을 위해서는 공동구매 및 공동콜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는 IT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를 추진함으로써 구매원가의 절감, 최종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IT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콜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회에서는 IT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의 현장취취 및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별 상시자문서비스 제공, IT벤처특강, 경영컨설팅지원,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제공서비스(080 무료상담서비스) 등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IT전문협의회지원센터 최병희 센터장

센터는 IT전문협의회 운영 총괄사무국으로서 개별 전문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와 협의회별 경영애로실태 DB구축, 공통애로 컨설팅지원, 투자유치 IR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IT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전문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IT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02-2140-3200)